

訓民正音의 異體字 ‘ㅇ’ 음가

권병로(군산대) · 박종희(원광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異體字 ‘ㅇ’의 본질 |
| 2. 선행 연구 | 4. 맺음말 |

1. 서론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 기술된 이체자 ‘ㅇ’의 음가는 현재 연구개 비음 [ŋ]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동일 부류의 ‘ㄱ’도 연구개 폐쇄음 [k]로 보는 데에 별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이 음들의 조음위치를 연구개로 보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치를 나타낸 것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자해의 기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음의 조음위치는 연구개 및 목젓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자해에서는 ‘ㅇ’에 대해 ‘舌根閉喉聲氣出鼻’라 설명하고 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조음되며 기류가 비강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혀뿌리가 인두벽에 협착되어 발생하는 일차적인 소리는 목젓음과 인두음이 다. 혀뿌리가 인두의 위쪽 부분으로 협착되면 목젓음이 되고 약간 아래쪽으로 협착되면 인두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제자해의 이 기술은 현대 음성학의

연구개음보다는 목젓음/인두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ㅇ’은 연구개음 [ŋ]이 아니라 목젓 비음 [N]이 되어야 한다.

‘牙音 舌根閉喉之形’으로 기술된 ‘ㄱ’도 역시 순수한 연구개음 [k]가 아니라 목젓음 [q], [χ]의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i, j] 및 [ㄹ, ㄴ] 뒤 환경의 ‘ㄱ’이 쉽게 탈락하거나 또는 일부 방언에서 ‘ㄱ > ㅎ’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음가가 순수한 [k]가 아니라 [high F1]의 약자음 [q], [χ]의 성질도 가졌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현대국어의 ‘ㄱ’([k])는 자음부류의 위치자질 가운데에서 강도가 강한 음이어서 쉽게 탈락하지 않고 동화주의 역할을 한다. 근대국어에 이르러 ‘ㄱ’의 조음위치가 연구개로 상승하여 현대국어와 같은 강도가 강한 연구개음 [k]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화에 맞춰 중세국어의 ‘ㄱ’탈락 규칙이 소멸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ㅇ’도 연구개 비음 [ŋ]으로 바뀌어진다.

조음위치가 상승되기 이전의 목젓 비음 ‘ㅇ’([N])은 유성 인두 마찰음 /s/와 변이음의 관계를 이룬다. 설근이 하부 인두와 협착을 이루면 유성 인두 마찰음 [s]를 발생시키는데, [s]/이 조음될 시 목젓이 약간 하강하거나 ‘舌根閉喉’가 약화되면 [비음성]을 띠게 된다. 인두벽의 상부, 하부 조음위치만 약간 다를 뿐 ‘ㅇ’[N], [s]는 비음적인 음성적 유사성이 현저하므로 변이음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중세국어에서는 ‘舌根’의 작용 결과에 따라 ‘牙音’과 ‘喉音’이 구별되는데, 아음은 [+RTR](Retracted Tongue Root) 자질을 가지며 후음은 [-RTR]을 갖는다. 그런데 다시 제자해는 ‘其聲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이라 하여 ‘ㅇ’과 ‘ㅇ’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결국 ‘牙音’과 ‘喉音’의 음향적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음적으로는 [RTR]의 차이를 이루지만, 음향적으로는 [high F1]을 공유하여 음향적 유사성을 나타낸다. ‘ㅇ’의 자형이 ‘因聲’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異體字’가 되었던 것은 이런 사실을 표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牙音 ‘ㅇ’의 아랫 부분 ‘ㅇ’은 喉音과의 음향적 유사성을 지시하고, 윗 부분의 ‘丨’은 후음과의 조음적 차별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함자해에서는 ‘初聲之○與○相似 於諺可以通用也’라 하여 ‘ㅇ’과 ‘ㅇ’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후음 ‘ㅇ, ㅇ’과 아음 ‘ㅇ’은 음향자질 [high F1]에 의해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루게 된다. ‘ㄱ’보다 소리가 세지면(稍厲) 가획

에 의해 ‘ㄱ’ ‘ㄷ’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조음위치는 연구개 쪽이 된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의 아음은 연구개음과 목젓음을 포괄하는 하나의 부류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선행 연구

아음 ‘ㅇ’에 대한 이른 시기의 관심은 김형규(1947), 김석득(1974), 김완진(1975), 김영만(1987)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자론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논의된 것들이어서 아음 ‘ㅇ’의 음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아음 ‘ㅇ’의 음가를 현대어의 음질말에 나타나는 ‘ㅇ’[ŋ]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김형규(1947)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다음 예를 들어 아음 ‘ㅇ’이 초성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1)러울(獺), 이아(綜)(해례 용자례)

(2)聖孫을 내시니이다(용가 8)

七代之王을 내시니이다(용가 15)

大瞿曇이 일우니이다(월인 5)

(1)은 명사형, (2)는 겸양의 조동사형으로 보고서 이들의 변천은 ‘잉아’와 같이 윗말의 받침이 되든가 또는 아주 소멸해버리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자의 魚의 음을 “어”로 보아 ‘鮒魚, 鯉魚, 秀魚’ 등의 발음은 ㅇ음이 윗말의 받침으로 되어서 현대어의 ‘붕어, 잉어, 송어’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ㅇ초성의 음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오늘날 비음으로 ㄴㅇ 세 자가 있으니, 그 발음을 보면 ㄴ은 입술을 막는 코소리요, ㅇ은 혀에서 막는 코소리요, ㅇ은 목에서 막는 코소리인데, 오직 ㅇ소리만 초성에서 그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해례에서 설명하듯이 ㅇ의 초성은 목에서 막는 콧소리에 틀림없었을 것이나, ㄴㅇ과는 달라 목에서 막는다는 성질이 약해서 모음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음성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목에서 막는 성격이 강하면 ㄱ자와 같이 되어 ㄱ자의 유성음같이 될 것이다. 또 해례의 설명에도 唯牙之○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아도 아음인 ㄱ에 가깝다기보다는 모음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의 초성은 오늘날 불란서 말에 많은 코로 새어나오는 모음 즉 비모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조 초기에는 우리말에는 비모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얼마 아니 가 이 음의 관념이 없어짐에 따라 ○초성도 없어지고 오직 종성에만 남았으나 이조 중기부터는 ○종성자 대신 ○자가 쓰이게 됨에 ○자는 아주 우리글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의 특징은 다른 초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초성에서 음성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음가를 단순하게 비음으로 기술하여 [ŋ]과 [N]을 구별하지는 않았다.¹⁾

또한 ○초성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들을 제시했다.

- (3) 꺾을(용가 88)
- 숯바을(용가 89)
- 쥬인들 주며(석보 9)
- 스스이 經을 보거늘(몽산법어 7)

이 예들은 세조 때까지 나온 불경언해에만 있을 뿐이고, 그 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성종 때의 두시언해 초간본에도 없으며 더욱이 훈몽자회에서는 初聲終聲通用八字 중에 ○을 넣고 初聲獨用八字 중에 ○을 넣었으나 ○초성의 사용례는 전연 없고 더욱 唯○之初聲與○字音俗呼相似 俗用初聲則皆用○音이라고 하였으니 이때 벌써 초성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4) 새로 스물여덟 字쥬를 퐁ᄃ노니(훈민정음)
- 뒤혜는 모던 쥬쥬(용가 30)

1)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말에도 비모음이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되니 그것은 함경도 방언에 “아방이”(아버지, 아저씨), “어명이”(어머니, 아주머니)같은 말은 ○받침이 뒷말에 붙지 않고 내려와 아랫말 “이”모음이 비모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뜻기를 스랑ㅎ는듯고(두언 16)
 星 別성 峯 맷봉오리봉(훈몽)

(4)는 ㅇ종성의 예로서 오늘날 ㅇ종성으로 된 말은 전부 ㅇ받침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훈몽자회에는 범례에서 初聲終聲通用八字 중에 ㅇ을 들면서 실제의 사용례를 보면 ㅇ 외에 ○받침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후부터 나온 경서언해나 그 밖의 모든 문헌에 ○받침만이 있을 뿐이고 ㅇ받침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므로 ㅇ자의 초성은 이조 초기에 잠깐 나타날 뿐이고 종성도 훈몽자회 이후에는 ㅇ받침 대신 ㅇ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형규(1947)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것은 ㅇ종성음이 변하여 ㅇ음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음가에는 변동이 없으나 표기에 있어서 ㅇ자를 쓰기보다는 ○자를 쓰는 것이 편하며, 또 ○자는 지금까지 종성으로 쓴 일이 없었으니 ㅇ자를 쉽게 대응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늘의 ○받침은 실은 ㅇ음이 아니요 ㅇ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순조 때 나온 유희의 언문지를 보면, ‘요지간 ○받침을 안 쓰고 ○받침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위법이니 ○받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설이 통용되지는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고 한자에 대해서는 그 후 오래 ㅇ종성을 써 왔고 종성이 없을 때만 ○받침을 붙여 온 것이다.”

다음으로 김석득(1974)은 ㅇ의 소리 자질을 논하면서, ㅇ은 해례 제자해에 ‘業字初發聲’이라 하고 언해에는, ‘業字중처심펴아나나소리ㄹㅌ니라’라고 하여, 한자 첫소리에 쓰임을 보이고 또 해례 제자해에 의하면, ㅇ은 ㄴㅇㅇ ㄷ과 같이 ‘不清不濁’이라 하고, ‘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이라 함을 들어 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①ㅇ은 ㄴㅇ과 같이 ‘不清不濁’(유성) 음이고 콧소리인데, 그 자질은 어떻게 다른가? ②ㅇ은 ㅇ과 상사하다는데, 그 자질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하여 첫째, ㅇ은, ㄴㅇ과 같은 목청울림 콧소리이나, 조음점은 모두 다르다. 곧, ㅇ은 혀뿌리가 목구멍쪽(여린 입천장)에 닿으며, ㄴ은 ‘舌附上顎’(제자해) 곧 혀끝이 윗잇몸에 닿고, ㅇ은 입술소리로 구별했다.

둘째, ㅇ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으며 날숨이 코로 나오고 성대를 떨어 올린다. 그러나 ‘解例’에서 ㅇ은 ‘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라 하였으니, ㅇ은 성대를 열어 놓은 상태이고, 자음적 성격을 전혀 갖지 아니한 ‘零’의 소리값일 뿐이다. 그러므로 종성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ㅇ은 조음점이 명백하고, 조음 방법도 명백하여 목청울림 있는 코소리 [ŋ]의 소리 자질을 갖는다. 해례에서 ㅇ과 ㅇ이 ‘相似’하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된 기술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ㅇ은 아래와 같이 최소 대립어를 형성하므로 하나의 독립된 음소 /ŋ/으로 인정하였다.

- (5) /ㅁ:/ㅇ/ ; 침(龍, 2) : 칭(악기 이름)(字會 中 32)
 /ㄴ:/ㅇ/ ; 돈(錢)(釋 六 8) : 둥(동강이)(月 八 83)

김석득(1974)에서 아음 ‘ㅇ’은 하나의 음소 /ŋ/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례에서 ㅇ과 ㅇ이 ‘相似’하다는 기술을 모순된 기술로 본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해례에서 아음의 글자형(어금니의 곧고 뾰족함을 본 뜬, 韻解 訓民正音 p.85 ‘ㅇ象牙之直而尖也’)을 ‘ㅇ’과 같이 한 것은 후음과 아음의 공통적인 음향적 특성을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음향적 성질은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운서에서도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이라 기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정음창제자들이 운서에 집착하여 있었기 때문에 운서의 ㅇ과 ㅇ의 혼동을 그대로 우리말에 적용하여 아음 ㅇ을 후음 ㅇ에서 출발하는 오류를 범했다(김규철 1975)고 말할 수는 없다. 아래의 洪武正韻譯訓에서도 ㅇ과 ㅇ의 혼동을 보이는데 이도 역시 음향적 유사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 (6) [·임] 吟 宜禁切(二十 沁)
 [·익] 逆 宜戟切(七 陷)

이러한 사실을 ‘盖喉屬水而牙屬木 ○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制字解)²⁾라 하여 五行설의 견해로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을 본다.

김영만(1987: 49)에서 [ŋ]은 아음에 속하며 그 중에서 가장 ‘不厲’한 ‘不清不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자원리에 따르면 아음의 기본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음의 기본자인 ‘ㄱ’과는 무관하게 후음의 기본자인 ‘ㅇ’에 중선을 가획함으로써 일견 제자원리에 파격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보면서 해례의 기술을 들어 ㅇ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³⁾ 즉, [ŋ]은 아음에 속하지만 소리가 ‘ㅇ’과 비슷하기 때문에 ‘ㅇ’을 기본자로 하여 가획하여 만들었다고 하면서, 옛 운서에도 이 두 소리(疑母 ○과 喻母 ○)를 혼용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완진(1975)은 정음 창자제들이 운서에 나타난 중국 한자음의 특수 현상 때문에 음성의 일반 원리와 제자의 기본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ㅇ’과 ‘ㅇ’의 유사성은 자음체계 전체를 볼 때는 특수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중국음의 ‘喻疑相混’이라는 일시적·우연적 현상을, 우리말의 제자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크게 균형을 깨뜨리는 유감스러운 일로 보았다. 김완진(1975: 190-191)의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 당사자들은 ‘ㅇ’음이 牙音임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음을 문자화함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喉音系로 처리한 데 대하여 극명하게 그 경위를 말하고 있다. …唯牙音之○.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盖喉屬水而牙屬木. ○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常多水氣也(제자해) ‘ㅇ’음을 아음으로 인식하면서도 운서의 체계에 있어 疑母(○)와 喻母(○)가 서로 분간되지 못하는 사실에 집착하여 ‘ㅇ’을 기초로 하여 제자했다는 것이다. 그들 스스

- 2) “목구멍은 수에 속하고 어금니는 목에 속하는 터이라 ○은 비록 어금닛소리에 있으면서도 ○과 비슷하여 나무의 움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워 아직 물기운이 많음과 같기 때문이다.”
- 3)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ㄱ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ㄱ而ㄱ ㄱ而ㄱ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爲異 唯牙之○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蓋喉屬水而牙屬木 ○雖在牙而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로가 실토하고 있는 이 움직임 수 없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음성의 일반 원리와, 특수 개별언어의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특수 현상 사이의 당연한 구별을 오히려 혼동하고, 후자를 전자에 앞세우는 인식 체계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疑母가 유모와 혼동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중국 한자음, 그것도 어두라는 국한된 위치에 있어서의 특수한 음운변화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견지했어야 할 일반음성학적 체계를 부분적으로 훼손시키면서까지 이 중국어에 있어서의 특수 현상을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에 반영시키려 들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체계적으로 정연하여 가히 완벽하다고도 할 수 있었을 초성자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흠을 남기고 만 것이다.

반면에, 정음의 창제자가 음운체계를 무시하고 아음인 [ŋ] 소리를 후음인 ‘ㅇ’에서 취상한 데 대하여 김영만(1987: 51)은 정음 창제자가 [ŋ]을 나타내는 글자를 아음의 기본 글자로 삼지 않은 것은 초성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임용기(2010: 88)에서는 제자해의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ㆁ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에서 ㄱ, ㅋ, ㆁ의 조음위치를 어금니로 기술하고 어금니를 본 떠 제자했다는 내용과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唯牙之ㅇ 雖舌根閉喉 聲氣出鼻”의 기술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舌根閉喉之形”을 조음음성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⁴⁾

최근의 백두현(2014)에서도 아음의 불청불탁자 ‘ㅇ’이 후형을 바탕으로 제자한 이유가 당시에 존재했던 중국 운어나 중국어에서의 疑母(ㅇ)와 喻母(ㅇ)의 혼동이라는 특수 현상을 적극적으로 훈민정음 제자에 반영한 결과로 본 김완진(1975, 1984), 강신항(1987, 2003)의 견해에 따라 제자해의 아음 ‘ㅇ’에 대한 기술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4) 이러한 기술은 牙音을 목젓음성과 연구개성을 포괄한 개념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음의 조음 영역을 목젓으로부터 연구개에 이르는 위치로 넓게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ㅇ’은 순수한 목젓 비음(舌根閉喉)에, 그리고 ‘ㅋ’ ‘ㆁ’은 순수한 연구개음(取象於牙)에 해당한다. ‘ㄱ’의 조음위치는 목젓과 연구개의 경계에 위치하여 목젓음성과 연구개성을 모두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ㅇ’은 연구개성이 없고 후음과 비슷해서 아음 제자의 기본자가 될 수 없었으며 아음의 중심 조음점을 가졌던 ‘ㄱ’이 ‘ㅇ’ 대신 제자의 기본자가 되었던 것으로 본고는 이해하고자 한다.

3. 異體字 ‘ㅇ’([舌根閉喉聲氣出鼻])의 본질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서 기술하고 있는 ‘舌根閉喉’는 문자 그대로 혀뿌리가 목구멍 즉, 인두를 협착하는 조음동작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조음점은 목젓 및 상부 인두가 될 것이다. 혀뿌리가 목젓 및 상부 인두 쪽으로 퇴행하여 인두 너비가 좁혀져서 발생하는 소리는 [q], [χ]이므로 현대 국어의 연구개음 [k], [ŋ]와 구별된다. [k]는 구강음임에 대해 [q]는 비구강음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q]를 조음할 때 목젓이 하강하여 비강 통로가 개방되면 즉, ‘聲氣出鼻’하면 [비음성]을 갖게 되어 [N]이 실현된다. 제자해의 기술에 충실하면 ‘ㄱ’의 조음위치는 연구개음과 목젓의 경계에 놓여 연구개음([k])과 목젓음([q])의 두 특징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ㅇ’은 순수한 목젓음 [N]을 나타내고 ‘ㅋ’ ‘ㆁ’은 순수한 연구개음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훈민정음의 牙音은 연구개음과 목젓음을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ㄱ’은 자질 [연구개성]과 [목젓성]을 모두 가진다. 나아가 牙音 ‘ㅇ’이 喉音 ‘ㅇ’과 상사하다는 사실은 글자의 형상(ㅇ)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혀뿌리가 하부 인두 쪽으로 좁혀지면 인두 마찰음 [ʃ]가 조음된다. 그런데 혀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에 따라 목젓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비강 통로가 개방되어 비음성을 갖게 된다. [ʃ]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이 모음은 비모음이 되기 쉬운데, 이는 실제로 아랍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N]과 [ʃ]는 비음성의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ㅇ’([N])은 [ʃ]와 유사하게 들린다. 그런데 제자해에서는 ‘其聲與○相似’라 하여 ‘ㅇ’이 ‘ㅇ’과 유사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喉音의 ‘ㅇ ㆁ ㅎ’과는 조음점이 다르므로 ‘ㅇ’ 위에 횡선을 가하지 않고 종선을 가하여 자형을 구별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ㆁ與○相似’라 기술하고 있어 결국 ‘ㅇ, ㄱ, ㅋ, ㅇ, ㆁ, ㅎ’은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루게 된다. 이 자연부류는 음향적 자질 [high F1]을 공유한다. 그러나 혀뿌리가 喉音에는 작용하지 않으므로 혀뿌리 자질([설축])에 의해 牙音과 구별된다. 자형 ‘ㅇ’은 후음과의 음향적 유사성을, 그리고 ‘ㄱ’은 후음과의 조음적 차이를 의식한 것이어서 가획을 위한 아음의 기본 자형은 ‘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Zawaydeh(2003)는 아랍어의 후음에 관한 논의에서 2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두너비(pharyngeal width)가 후음(guttural)과 비후음(nonguttural)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두는 치아와 경구개처럼 단순한 조음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조음자로 본다. 발화 기간 동안 인두의 직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능동적인 조음자로 간주한다.⁵⁾

다른 하나는 후음(guttural sound)들이 음향적으로 하나의 부류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한다. 후음들은 그들에 인접해 있는 음들의 F1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인두음들은 하부 인두에서 협착을 일으키고(Ghazeli 1977), 목젓음(uvulars)과 강조음(emphatics)은 상부 인두의 목젓 가까이에서 협착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협착에 의해 F1이 상승된다는 것이다.⁶⁾

Rose(1996)는 모든 후음(guttural)들이(후두음(laryngeal)을 포함해서) 인두마디를 공유하고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욱이 목젓음, 인두음, 강조음들이 [RTR]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음들이 모두 설근퇴행이나 또는 인두협착으로 조음되는 점에 주목하여 자질 [RTR]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후두음은 인두마디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후음들과 유사하게 되지만, 자질 [RTR]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Shahin(1997)은 Palestinian Arabic에서 후두음이 비어간말 단모음의 F1을 상승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설근퇴행 조음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 언어의 후두음은 설근퇴행에 의해 조음된다고 가정했다. 그리하여 모든 후음(gutturals)들은 조음자 자질 [Tongue Root]로 명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이러한 관점은 Hardcastle(1976)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인두의 직경이 설근의 위치에 의해 변경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전설모음 [i]는 인두강을 넓게 하며 후설모음 [a]는 인두강을 좁게 만들게 된다. 인두의 전부-후부는 또한 연구개의 움직임에 따라 변한다. 더욱이 인두의 측면도 상당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팔약 근육들의 균등 수축은 인두를 좁게 만들며 같은 양의 수축은 인두벽을 긴장시킨다. 인두의 긴장은 음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쳐 금속성을 띠게 한다(Hardcastle 1976: 125). 이외에도 등축의(isometric tensing) 인두 긴장은 한국어의 긴장음(tense sound)을 조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인두는 소리의 조음과 공명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음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Zawaydeh 2003: 280).

6) 인두 협착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하부인두 협착으로서 인두음 조음 시 사용하고 다른 또 하나는 상부인두 협착으로서 목젓음 및 강조음 조음 시 사용된다(Ghazeli 1977, Catford 1977, Ladefoged and Maddieson 1996).

Zawaydeh(2003)에서도 아랍어의 후두음 [h], [ʔ]는 음운론적으로는 다른 후음(gutturals)들과 같이 행동하지만 인두 좁힘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젓음, 인두음, 강조음의 조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두의 좁힘은 인두가 하나의 조음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⁷⁾ 자연부류는 능동적인 조음자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질도형의 본래 제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두음의 조음에서는 설근이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질도형이 의미하는 바는 후두음에 [RTR] 자질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랍어의 후두음(laryngeals)은 다른 후음(gutturals)들과 조음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음향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Zawaydeh(2003)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두음을 포함한 모든 후음(gutturals)들은 비후음보다 더 높은 F1을 나타낸다. 구강음과 후음, 그리고 구강음과 인두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에 후두음과 후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음이 비후음(nonguttural sound)일 때보다 강조음, 목젓음, 인두음, 후두음일 때 F1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후음들(후두음을 포함해서)은 높은 F1을 가지게 된다. 아랍어 후음들의 음운론적 패턴은 이러한 음향적 묶음에 의해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비후음과 대립을 이룬다는 점에서 후두음은 인두음과 한 부류로 묶여질 수 있게 된다.

Jordanian Arabic어에 대한 Zawaydeh(2003)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언어의 강조음, 목젓음, 인두음은 인두의 직경이 좁혀지지만 후두음은 좁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후음들(후두음을 포함한) 뒤에 오는 모음은 구강음 뒤에 오는 모음보다 F1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언어는 조음적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후음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지 않고, 음향적 유사성을 토대로 하여 강조음, 목젓음, 인두음, 후두음을 한 부류로 묶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⁸⁾ 하나의 음운론적인 부류를 음성학적으로 직접 연계시켜 주는 이러한 설명 방법은 후음(gutturals)들이 동일한 조음 영역(articulatory zone)을 갖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한 부류가 된다는 추상적인

7) 목젓음화된 분절음(uvularised segments)은 일반적으로 강조음(emphatics) 또는 인두음화된 소리(pharyngealised sounds)를 지시한다(McCarthy 1994).

8) Flemming(1995)에서도 자연부류를 표시하는 데 음향적 자질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설정음과 전설모음은 [high F2]에 의해, 그리고 순음과 원순모음은 [low F2], 후설모음과 원순모음은 [low F2]에 의해 자연부류를 이룬다.

제안보다 수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자해의 아음 ‘ㅇ’ ‘ㄱ’에 대한 기술 ‘舌根閉喉’는 이들이 현대국어의 연구개음이 아니라 자질 [목젓음성] 내지는 [인두음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젓음 [q], [ŋ]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연구개음 [k], [ŋ]으로 조음위치가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서 생산적이었던 ㄱ탈락 규칙이 소멸하게 된 것이다. ‘ㄱ’, ‘ㅇ’이 지녔던 조음자질 [Pharyngeal Diameter]에 의해 제자해의 아음은 후음과 구별된다. 조음적인 인두좁힘의 유무에 의해 아음과 후음이 구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해의 아음 ‘ㄱ’ ‘ㅇ’은 [+설축], 후음 ‘ㅇ’은 [-설축]으로서 변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음향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룬다. 이들 모두 [high F1]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음적, 음향적 사실들을 모두 고려했기에 아음의 자형이 ‘ㅇ’으로서 異體字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자형의 위쪽 종선은 ‘ㄱ’과 같은 [설축]의 조음적 특성을, 그리고 아래쪽의 ‘ㅇ’은 음향적 자질이 후음과 유사함을 형상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ㄱ’은 [연구개성]을 가지므로 아음 제자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⁹⁾ 여기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ㄱ’과 ‘ㄱ’은 생리학적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조음위치가 상승하여 순수한 연구개음이 된다. 결국 훈민정음의 牙音은 1차적인 조음위치로서의 목젓과 이의 변이적인 조음위치로서 연구개를 포괄한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국어에 이르러 ‘ㅇ’과 ‘ㄱ’의 1차적인 조음위치까지도 연구개로 상승시키고 또한 [-설축]으로 바뀌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목젓음(uvulars)은 피열후두개 주름의 협착(aryepiglottic constriction)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 음은 후두 소릿길(Laryngeal vocal tract)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목젓음은 또한 혀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따른 기능으로 산출되므로 분명히 구강 소릿길(Oral vocal tract)도 관여한다. 그러므로 목젓음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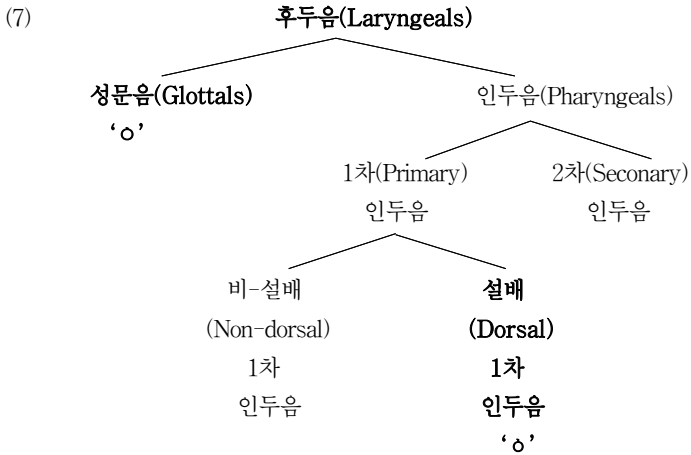
9) 김완진(1984:5)은 “‘ㄱ’을 가지고 아음의 기본자로 삼은 것은 자체의 논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배반이다. 자음의 기본자는 폐쇄음이 아닌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공통된 원칙이다. 따라서 설음의 ‘ㄴ’, 순음의 ‘ㄹ’, 치음의 ‘ㄷ’, 후음의 ‘ㅇ’등이 모두 그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첫머리의 아음에 대해서는 폐쇄음 ‘ㄱ’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소릿길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양쪽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목젓음은 혀의 이동과 후두 협착자(laryngeal constrictor)의 작용으로 산출된다.¹⁰⁾ 그리하여 이 후두 협착자의 작용에 의해 연구개음이 되지 않고 목젓음이 된다(Shahin 2011: 618). 제자해의 기술 牙齶—象舌根閉喉之形은 혀뿌리가 퇴행하여 인두가 협착되는 조음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hoisan어에 대한 Miller-Ockhuizen(2003)의 분석을 보면, 모든 인두음과 성문음은 형태소 내부의 OCP제약에서 함께 행동한다. 즉 어근 형태소 내에서 인두음과 성문음은 다른 어떤 인두음 및 성문음과 공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는 인두(pharynx) 및 후두(larynx)의 구조는 하나의 조음적 구조 즉, ‘후두 협착자 기제’(laryngeal constrictor mechanism)에 의해 통제됨을 주장했다. 그리고 인두음과 성문음의 상위 부류를 후음(gutturals)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이 후음은 이미 1차 인두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바 있으므로 기술의 투명함을 위해 Shahin(2011: 607)은 후두음(laryngeals)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체계에서 ‘성문음’과 ‘후두음’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썸어에서 성문음 [ʔ, h]은 1차 인두음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2차 인두음 및 설배 1차 인두음(즉 단순한 목젓음)도 하나의 부류로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인두음 조음 시 나타나는 피열후두개 주름의 협착은 Esling(2005)이 기술한 피열후두개 협착자 기제(aryepiglottic constrictor mechanism)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기제는 그에 의해 ‘후두 협착자(laryngeal constrictor)’, ‘후두협착자 기제(laryngeal constrictor mechanism)’, ‘후두 조음자(laryngeal articulator)’로 지시된 바 있다. 또한 그의 여러 조음적 자료들은 성문의 동작(glottal gestures)에도 이와 동일한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2차적으로 인두음화한 연구개음(secondary pharyngeal velars)과 1차적인 설배 인두음(dorsal primary pharyngeals)은 모두 목젓음(simple uvulars)으로 음성 실현된다.



이로 보아 제자해의 성문음 ‘ㅇ’ 및 목젓비음 ‘ㅇ’은 동일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제자해에서는 ‘ㄱ與ㅇ相似’, ‘ㅇ與ㅇ相似’라 기술하고 있다. 결국 셈어와 유사하게 중세국어의 성문음, 목젓음(설배 1차 인두음)은 F1의 상승과 같은 음향적 특징에 의해 하나의 자연부류를 형성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두음을 상위 부류로 하는 인두음의 유형을 나타내면 위 (7)과 같다 (Shahin 2011: 613). 이를 토대로 하여, 제자해의 喉音 ‘ㅇ’과 牙音 ‘ㅇ’이 동일한 자연부류를 이루는 사실과 그 위계를 (7)의 자질도형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hahin(2011: 614)에 의하면, Hebrew와 Arabic어의 성문 1차 인두음 (glottal primary pharyngeals)은 단순한 성문음(glottal)이어서 다른 1차 인두음(primary pharyngeals)들이 갖는 피열후두개 협착(aryepiglottic constriction)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¹¹⁾ 그러므로 성문음은 모든 1차 인두음의 자질을

11) 인두음의 모든 부류는 조음적인 공통성으로 피열후두개 주름(aryepiglottic folds)의 수축을 나타낸다(Esling 1999). 그리하여 인두음 또는 후두개음으로 분류된 모든 자음들의 1차 협착은 능동적 조음자인 피열후두개 주름과 수동적 조음자인 후두개 사이에서 산출된다. 협착이 이루어지면 후두개와 설근은 인두벽을 향해 뒤로 물러나게 된다. 전통적으로 인두음과 후두개음은 두 부류로 보아 왔으나 실제로는 한 부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두음의 능동적인 조음자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후두개도 아니며, 설근도 아닌 피열후두개 주름임이 밝혀진 바 있다.

지녀서 1차 인두음과 같은 패턴을 나타내지만, 최소한 아랍어의 경우는 매개 변형적 제약이 1차 인두음의 특징인 후두개 협착 자질의 음성적 비실현을 강요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세국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후음은 [-설축]자질을 갖기 때문이다.

피열후두개 주름의 협착에 의해 1차 인두음이 조음된다는 사실 이외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인두가 상승하고, 턱이 하강하며 뒤로 물러나 무성의 1차 인두음은 마찰음으로 실현되는 근접음(approximants)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설배 1차 인두음(dorsal primary pharyngeals)은 피열후두개 주름의 협착 이외에 부가적으로 설배(tongue dorsum)가 목젓을 향해 뒤로 물러난다.

그리하여 1차 인두음은 상승된 F1을 나타내며(Zawaydeh 2004, Shahin 2002), 설배 1차 인두음 즉 목젓음은 하강된 F2를 나타낸다(Ghazeli 1977). 그리고 이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음조(low pitch)를 나타낸다. Jakobson (1957)은 이러한 낮은 음조를 근거로 하여 인두음을 [+flat]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인두 모음과 비인두 모음을 구별시키는 자질로서 Stewart(1967)는 [ATR]을 제안했다. 그러한 체계에서 인두 모음은 [-ATR]로 명시된다.

Chomsky and Halle(1968)는 1차 인두 자음들이 낮은 소리길의 조음동작에 의해 산출되므로 [+low]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후 조음자 이론에 찬동하는 많은 음운론자들은 능동적인 조음을 기술하기 위해 [RTR]을 사용해 오고 있다.

McCarthy(1994)도 조음자 이론(Articulatory Theory)을 언명하면서, 인두 음 자질은 사실상 인두(pharynx)의 구강감각(orosensory)을 의미하는 [pharyngeal]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1차 인두음에서 나타나는 조음자-기반 자질이 성문 1차 인두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인두음에 대한 인두의 조음 표시는 결국 조음자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열후두개 주름의 수축으로 인두음을 기술하면 음성학 내에서 조음자를 기반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만일 [pharyngeal]을 ‘피열후두개 주름의 수축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pharyngeal]이 바로 그런 자질이 될 수 있다(Shahin 2011: 619). 또한 인두음의 능동적인 조음자 즉 피열후두개 주름을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자질은 [aryepiglottic]이 될 것이다.

[-ATR] 모음과 [pharyngeal] 모음이 동일하다는 말은 [pharyngeal]이 실제로 이분 자질임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pharyngeal]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명시가 되며, [-pharyngeal]은 단지 [+ATR] 모음에 대한 명시가 된다.

김주원(1999: 319)에서는 혀의 중립위치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유형 즉 설근전진 모음과 그렇지 않은 모음 즉 설근비전진 모음의 대립이 있는 유형의 모음조화가 있는가 하면, 혀의 중립위치로부터 뒤로 움츠러드는 유형 즉 설근후축 모음과 그렇지 않은 모음 즉 설근비후축 모음의 대립이 있는 유형의 모음조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세 한국어는 RTR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RTR] 및 [ATR]이 조음동작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고, 능동적인 조음자가 피열후두개 주름이어서 이의 수축 여부에 의해 설근의 퇴행과 전진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RTR] 유형의 언어와 [ATR] 유형의 언어로 대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어느 언어에서 어떤 모음이 중성 모음을 이루는가 하는 것은 언어에 따른 변형의 문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질 대신에 [pharyngeal] 또는 [aryepiglottic] 자질을 채택한 것이다.

4. 맺음말

중세국어의 아음 ‘ㅇ’의 음가는 일반적으로 연구개 비음 [ŋ]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례의 기술, 즉 ‘舌根閉喉聲氣出鼻’를 고려해 볼 때 이 음은 연구개 비음이 아니라 목젓 비음 즉 1차 설배 인두음으로 추정케 한다. 당시 ‘ㅇ’의 조음위치는 연구개보다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근’이 퇴행하여 인두가 좁혀지는 조음점은 상부 인두, 다시 말해서 목젓이어야 한다. 설근이 연구개를 향해 퇴행하는 것은 인체 생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개 비음으로 보았던 것은 ‘舌根’이라는 기술을 헛봄 정도가 가볍게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아음 부류에 속하는 ‘ㄱ’도 자질 목젓음 [q]과 연구개음 [k]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取象於牙也’는 연구개성을, 그리고 ‘象舌根閉喉之形’은 목젓음성 내지 인두성

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해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아음의 조음영역은 현대언어학의 목젓음과 연구개음을 포괄한다. 중세국어에서 ‘ㄱ’ 탈락 및 ‘ㄱ>ㅎ’이 현대국어와 다르게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음의 강도가 큰 순수 연구개음이 아니라 음조가 낮은 목젓음 즉 1차 설배 인두음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6세기 말경에 이르러 아음의 조음점이 상승하여 고정된다. 그 결과 [q]→[k]로 변함으로써 조음이 용이해 질 뿐 아니라 강도가 커져 음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ㄱ’의 탈락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조음점이 상부 인두에서 약간 하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목젓이 따라 하강하므로 비강 통로가 개방되어 기류가 비강으로 나가 비음 [N]이 실현되는데, 이 음이 바로 ‘ㅇ’의 음가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두 마찰음 [ʃ]과 변이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ʃ]이 비음성으로 작용하는 언어들도 많이 발견된다.

연구개음을 제외한 목젓음, 인두음, 성문음은 능동적인 조음자 피열후두개 주름의 수축 및 음향적 자질 [high F1]에 의해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룬다. 그러므로 해례의 목젓음 ‘ㅇ’과 후음 ‘ㅇ’은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루어 청각적인 유사성을 나타낸다. 목젓음 ‘ㅇ’에 대해 ‘其聲與○相似’란 기술은 바로 이를 파악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특징 때문에 이체자 ‘ㅇ’을 특별히 제자하고 또한 가획의 원리에 벗어남을 알면서도 가획의 기본자를 ‘ㄱ’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정밀한 기술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해례가 지닌 오류로 보았던 점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sonorant] 자질의 유무에 의해 자연부류 내의 목젓음 ‘ㅇ’과 성문음 ‘ㅇ’은 구별된다. 전자는 [+sonorant], 그리고 후자는 [-sonorant]로서 변별된다. 아음 ‘ㅇ’과 후음 ‘ㅇ’의 자형을 유사하게 제자한 이유도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87/2003), 훈민정음연구(수정증보판), 성균관대 출판부.
- 김규철(1975), 훈민정음연구,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13, 91-101.
- 김석득(1974), 없어진 글자의 상고, 나라사랑 14, 외솔회, 1-25.
-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41-68.
- 김영만(1987), 훈민정음 자형의 원형과 생성체계 연구, 장태진박사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43-70.
- 김완진(1975),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3-1·2 합병호(일석 이희승팔순기념특대호), 186-1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완진(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19.
- 김유범(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23집, 우리말연구학회, 35-55.
- 김주원(1999), 설근후축(RTR)과 설근전진(ATR) - 알타이제어와 15세기 한국어의 모음조화 -, 언어의 역사, 태학사, 311-341.
- 김형규(1947), ㅇ ㅎ 음고, 조선교육 2-3집, 18-22.
- 박종희(1983), 국어음운론연구, 원광대출판국.
- 박종희(1993), 국어음운론연구Ⅱ, 원광대출판국.
- 박종희(2000), 원순모음화현상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1-26.
- 박종희(2008), 중세 국어의 분철 표기형과 대응 이론, 한글 279, 한글학회, 35-60.
- 박창원(1993), 훈민정음 제자의 ‘理’에 대한 고찰,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613-641.
- 백두현(2014), 『훈민정음』해례의 制字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어문학 123, 39-66.
- 이승녕(1956), 접미사 -k(g), -ŋ에 대하여, 논문집(서울대) 4, 79-200.
- 임용기(1999), 이른바 이체자 ‘ㅇ, ㄹ, △’의 제자 방법에 대한 반성, 『새국어생활』 9-4, 161-167.

- 임용기(2010),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과 훈민정음, 국어학 57, 국어학회, 75-106.
- 장윤희(2013),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위계성과 이체, 어문연구 41(2), 37-56.
- 정 광(2005), 훈민정음의 사람들, 162, 제이앤씨.
- Abigail, Cohn C.(1993), Nas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or phonetics, *Phonology* 10. 43-81.
- Catford, J. C.(1977), Mountain of tongues: The languages of the Caucasu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6. 283-314.
- Chomsky, Noam & Morris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Connel, Bruce and Hajek, John, *Universals of nasal attrition*, Phonetics Laboratory, University of Oxford.
- Esling, John H.(1999), The IPA categories "pharyngeal" and "epiglottal": Laryngoscopic observations of pharyngeal articulations and larynx height. *Language and Speech* 42. 349-372.
- Esling, Jhon H.(2005), There are no back vowels: The laryngeal articulator model.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50. 13-44.
- Flemming, Edward.(1995), *Auditory representations in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CLA.[Published 2002 by Routledge, New York & London]
- Ghazeli, Salem.(1977), *Back consonants and backing coarticulation in Arabic*.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Halle, M. & K. N. Stevens.(1969), On the feature 'Advanced Tongue Root', *Quarterly Progress Report No. 94*,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M.I.T.
- Halle, Vaux and Wolfe.(2000), On feature spread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place of articulation, *LI* 31. 3. Summer 2000, 387-444.
- Hardcastle, William J.(1976), *Physiology of speech production*. London: Academic Press.
- Hetzron R.(1969), Two notes on Semitic laryngeals in East Guraige,

- Phonetica 19: 69–81.
- Ito, Junko and Mester, Armin.(2009), The onset of the prosodic word,
In *Phonological Argumentation: Essays on Evidence and Motivation*,
Steve Parker(ed.), London: Equinox, 227–260.
- Jakobson, Roman.(1957), Mufaxxama: The "emphatic" phonemes in Arabic.
In Ernst Pulgram(ed.) *Studies presented to Joshua Whatmough
on his sixtieth birthday*, 105–115. The Hague: Mouton.
- Ladefoged, Peter & Ian Maddieso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Oxford & Malden, MA: Blackwell.
- McCarthy, John J.(1994),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Semitic
pharyngeals. In Patricia Keating(ed.) *Phonological structure and
phonetic form: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III*, 191–2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ohn J. and Matthew Wolf.(2005), Less than zero: correspondence
and the null output, Rutgers Optimality Archive, ROA-482.
- Miller-Ockhuizen, Amanda.(200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gutturals: A case study from Jul'hoansi. New York: Routledge.
- Rose, Sharon.(1996), Variable laryngeals and vowel lowering, *Phonology*
13, 73–117.
- Shahin, Kimary.(2002), Postvelar harmony.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hahin, Kimary.(2011), Pharyngeals, in the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onology V.1*, 604–627, Wiley-Blackwell.
- Stewart, John M.(1967), Tongue root position in Akan vowel harmony.
Phonetica 16. 185–204.
- Zawaydeh, Bushra.(2003), Review of Janet C. E. Watson(2002). *The
phonology and morphology of Arabic*. *Phonology* 20. 280–283.
- Zawaydeh, Bushra.(2004), The interaction of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gutturals, *Phonetic Interpretation,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9–292.

【국문초록】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서는 ‘ㅇ’에 대해 ‘舌根閉喉聲氣出鼻’라 기술하고 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조음되며 기류가 비강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혀뿌리가 인두벽에 협착되어 발생하는 일차적인 소리는 목젓음과 인두음이다. 혀뿌리가 인두의 위쪽 부분으로 협착되면 목젓음이 되고 약간 아래쪽으로 협착되면 인두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ㅇ’은 연구개음 [ŋ]이 아니라 목젓 비음 [ŋ]이 되어야 한다.

목젓 비음 ‘ㅇ’([ŋ])은 유성 인두 마찰음 [ʃ]와 변이음의 관계를 이룬다. 설근이 하부 인두와 협착을 이루면 유성 인두 마찰음 [ʃ]를 발생시키는데, [ʃ]이 조음될 시 목젓이 약간 하강하거나 ‘舌根閉喉’가 약화되면 비음성([nasal])을 띠게 된다. 인두벽의 상부, 하부 조음위치만 약간 다를 뿐 [ŋ]('ㅇ'), [ʃ]는 비음적인 음성적 유사성이 현저하므로 변이음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舌根’ 작용의 결과에 따라 아음은 [+설축] 자질을 가지며 후음은 [-설축]을 갖는다. 그런데 제자해는 ‘其聲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이라 하여 ‘ㅇ’과 ‘ㅇ’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결국 ‘牙音’과 ‘喉音’의 음향적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다. 조음적으로는 [설축]의 차이를 이루지만, 음향적으로는 [high F1]을 공유하여 음향적 유사성을 나타낸다. ‘ㅇ’의 자형이 ‘因聲’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異體字’가 되었던 것은 이런 사실을 표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牙音 ‘ㅇ’의 아랫 부분 ‘ㅇ’은 喉音과의 음향적 유사성을 지시하고, 윗 부분의 ‘丨’은 牙音과의 조음적 차별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합자해는 ‘初聲之ㄷ與○相似 於諺可以通用也’라 하여 ‘ㅇ’과 ‘ㅇ’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후음 ‘ㅇ’과 아음 ‘ㅇ’은 능동적 조음자인 모뿔달개 주름의 협착 및 음향자질 [high F1]에 의해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루게 된다.

주제어 : 牙音, 喉音, 舌根閉喉, 其聲與○相似, ㄷ與○相似, 異體字

【Abstracts】

The phonetic value of ‘ㅇ’ in HUNMINGEONGEUM

Kwon, Pyoung-Ro & Park, Jong-Hee

In this paper I aimed to explain the phonetic value of ‘ㅇ’ in Middle Korean. This phonetic value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as a soft velar sound /ŋ/ by many pioneer researchers. However the descriptions of HUNMINGEONGEUM seemed to tell us its value as a uvular not a soft velar sound. Since uvulars are produced with aryepiglottic constriction, the uvular should be included in the Laryngeal Vocal Tract. It is apparently included in the Oral Vocal Tract because uvular articulation is a function of independent movement of the tongue. However, uvulars quintessentially straddle the border between the two vocal tracts, and their production involves both. Uvulars are produced with movement of the tongue and action of the laryngeal constrictor. The latter is what makes them uvulars instead of velars.

We must approve that the aryepiglottic folds was the principal articulator in Middle Korean. At that period we frequently found the deletion of ‘ㄱ’ contrary to the contemporary Korean. The reason why this deletion occurred productively at that time this sound was the uvular which was weaker than the velar.

If the point of articulation were to descend towards a lower pharynx the uvular could be lowered resulting to open the passage of a nasal cavity. By

this operation of the vocal organization nasal sound ‘ㅇ’ could be produced. Consequently I insisted that ‘ㅇ’, ‘ㄱ’ was uvular /N/, /q/ respectively until the late of the 16th Century.

Uvulars, pharyngeals and laryngeals except velars were made up of a natural class by a acoustic feature [high F1] and aryepiglottic constrictor. Therefore uvular ‘ㅇ’ could easily be confused with a laryngeal ‘ㅇ’ because these sounds were likely perceived by the hearer. This similarity of acoustic images was caught at that time and so we should not tell this description of HUNMINGEONGEUM as the fallacy. The ‘ㅇ’ could have been contrasted with the ‘ㅇ’ by dint of a [RTR](retracted tongue root) feature; the former was [+RTR] and the other [-RTR]. I assumed that the phonetic value of laryngeal ‘ㅇ’ was a slack glottal stop following the earlier my suggestion. On the basis of two dimensions which was the opening degrees of a glottis and the slackness of a vocal cords, the laryngeals of Middle Korean could systematically be analyzed. The least weak sound ‘ㅇ’ functioned as the initial position marker of a vowel syllable and the trace of a deleted segment. The concept of a trace had the same meaning as the empty string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separate writing of the coda from the following vowel initial syllable.

Key words : uvulars, pharyngeal and laryngeal, aryepiglottic constriction, natural class, acoustic feature [high F1], empty string

이 논문은 2015년 1월 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